

사훈

밝은 불성의 개발(佛)
바른 생활의 창조(法)
맑은 사회의 실현(僧)

1월호

奉元寺報

발행인 최학성(원허)
주 간 조보현(고담)
편집인 황영상
인쇄인 준빈기획
발행처 한국불교대학교종 봉원사
TEL 392-3007~8
FAX 393-9450
http://www.bongwonsa.or.kr
등록일 1998년 1월 6일 등록번호 라 08352

2021년(불기 2565년) 1월 1일 금요일(음력 11월 18일)

봉원사보

제286호

근하신년(謹賀新年)



사진 선암 석인철

신축(辛丑年)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실학 옥천범음대학
장 박경재

의의 봉원사종회
원장 전지암
김향천
이석천

사회어 영산재보존회
사무국장 최원허
장 최원허

사재교총부주 봉원사
회무무무지 지
박처연마장 조 최
명허교호담원소
명허교호담원소

회 주심만춘

총부단 합창단
무김인숙 최병수
장장 엄정연

봉재총부 회 관음회
사무무무장 이광명
김순자 김순복 전자성각 전법연지 한원명지 최선덕화 황무량성 이광명심 노대행심 안보성화 송화영 송진여심 송성심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전통사찰 봉원사

불기 2565년 신축(辛丑)년 봉원사 제44세 주지 원허 스님 신년사

타인을 이롭게 함은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자리아타(自利利他)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진리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봉원사 사부대중과 불자님들의 가정에 불은(佛恩)이 충만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바라는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천명을 오르내리는 지금은 2.5단계에서 3단계로 방역 격상 여부를 가름하는 위중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에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임상실험 중이며,

백신 계약도 체결되어 머지않은 시기에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의 끝이 아직은 요원한 것처럼 보여도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잘 인내해 오신 사부대중과 불자님들께서는 조금씩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보이고 있음을 이제 곧 몸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지난날에도 여러 차례의 국가적 난관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라를 발전시켜온 힘과 역량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장애 속에서도 신속한 K방역은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외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잘 지속되고 있으며 OECD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에도 큰 변화는 없으며 K-POP 역시 코로나19로 우울한 세계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은 불안정해 보여도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봉원사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보존 계승하며 50여 대종 스님들이 힘을 합쳐 불법을 전승하는 천년고찰의 명승사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봉원사와 인연을 같이한 사부대중이 전생의 업연(業緣)에 따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경자년 한해를 무탈(無煩)하게 보내게 된 것은 봉원사의 사부대중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곤혹스러움의 나락에 빠졌을 때 종종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혼자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의 테두리를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경우에 따라 공감을 해 준다면 어려움도 힘든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어울려 살면서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 마음을 열어 준다면 이 또한 자리아타의 진리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힘을 내고 내가 아닌 남을 앞세우며 양보와 자비로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이러한 봉원사의 풍토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 즉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진리로 이제 스님과 신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보살의 이타 정신과 더불어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위하고 우리의 수행과 신앙도량인 봉원사를 위해 헌신한다면 더 많은 봉원사의 번영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신축(辛丑)년 새해에는 이타심으로 내가 아닌 남을 더 보듬고 관용을 베풀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에게는 자비(慈悲)와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바라는건데,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와 보은이 함께하기를 기록하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중산림 참회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동안거중 행해지는 중산림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특히 이날은 연비의식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참회하고 부처님께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많은 신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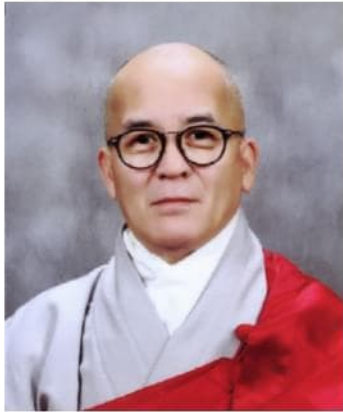
- 날 짜 : 2021년 1월 7일(음력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5시, 10시
- 장 소 : 봉원사 설법전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봉원사 경내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사 전 주지 운봉 스님 퇴임사

지난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



코로나19의 확산 소식에 불안감이 늘어만 가는 연말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도님과 사부대중께 안부인사 드립니다.

본인은 이제 태고종의 총본산인 봉원사 주지라는 중책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지난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주지의 자리에서 물러나 종도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인을 도와 함께 임기를 마무리해 주신 부주지 현성 스님과 소임 스님들, 그리고 종무직원 여러분과 관음회를 비롯한 신행단체 회원님들, 봉원사 사부대중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불가에 몸을 담은 후로 덕이 높으신 스님들을 본받으려 노력해왔던 40여 년과 함께 봉원사 주지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아 지난 3년간 소임을 다해 노력해 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 본인은 봉원사의 수행 환경개선을 위한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와 시주접수처 건립,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등록, 영산재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영산재 시연과 학술세미나 등 봉원사의 각종 중요한 행사들을 봉행하고 법맥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며, 태고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 사찰 내·외부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힘든 시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봉원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많은 행사를 봉행하면서 아직껏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저한 방역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준 사부대중과 임직원들 그리고 봉원사의 방침에 따라 철저히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신 신도님들 덕분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많은 우여곡절과 어렵고 고통스런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은 봉원사가 더욱 발전하는 데 소중한 경험과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마음 아프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봉원사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 총본산 봉원사는 제44세 주지 원허 스님과 제12세 부주지 고담 스님을 비롯해 새로운 소임스님들을 맞아 지난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새로운 집행부를 위해 헌신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소납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대중 큰 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봉원사의 미래와 한국불교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봉(雲峰) 합장

불기 2565년 신축(辛丑)년 봉원사 관음회 송성심월 회장 신년사

선행을 닦아 불도(佛道)에 정진(精進)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봉원사 불자님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은 이제 뒤로 하시고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위중한 팬데믹 시기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봉원사와 관음회를 비롯한 여러 신행단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불자님들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새해가 되면 가슴속에 무언가 벅차오르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새로운 각오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발원을 하며 희망찬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계획을 세우고 발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초에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속된 생각을 버리고 선행을 닦아 오로지 불도에만 열중하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봉원사의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봉원사의 행사와 불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봉원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민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처님의 자비와 불심도 느끼시고 각 신행단체에 가입하여 봉사와 나눔을 통해 불교 교리의 이해와 아울러 정진에 힘을 써 보도록 합시다.

둘째,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 봉원사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靈山齋)를 유일하게 거행하고 있습니다. 영산재라는 장엄한 불교의식은 오로지 우리 봉원사에서만 봉행되고 있습니다.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런 유산을 가진 대가람에 속해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도록 합시다.

올해는 신축년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흰소는 우직함, 충직, 근면, 성실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흰 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올 한 해도 소와 같은 우직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각자 세우신 목표가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잘 대처하시어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신도님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피안에서 안락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보람된 생활을 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 하십시오.

● 관음회 시주금 1천만 원 ●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건 ●

봉원사는 순수 기부금에 한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제44세 주지 최원허 스님, 제12세 부주지 조고담 스님 당선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원사의 새로운 도약을 발원



주지 원허 스님



부주지 고담 스님

봉원사는 12월 11일 오후 5시 설법전에서 주지 선출을 위한 대중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종회의장 전지암 스님을 좌장으로 2시간여 동안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주지 입후보자 최원허 스님과 조현성 스님 모두 봉원사의 희망찬 앞날을 일구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대중좌목 중 각방 화주(선거권) 37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주지 선거에 최원허 스님이 당선되었다. 이어서 부주지 선거에는 조고담 스님의 단독 입후보로 투표 없이 전례에 따라 당선이 확정되었다.

주지 당선 직후 최원허 스님은 “모두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며 “선거 이후에도 봉원사 대중의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 부주지 조고담 스님은 “선출된 주지 스님을 힘껏 돕겠습니다. 대중스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사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조석봉 스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셨던 전당 노장 스님들께서도 상·하관 수좌 스님의 부축을 받아 평소의 병마를 잠시 잊고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찾아뵙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여기며 다가올 신축년에 한국불교와 태고종 총본산 봉원사의 새로운 도약을 발원하며 힘을 모으는 열의를 뭉소 보여주셨다.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奉元寺 大房 石造如來坐像)

—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77호 지정 —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6점과 문화재자료 2점이 지정되었다. 현재는 봉원사의 문화재 2점과 문화재자료 3점이 추가로 지정 고시된 상태이다.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자료 제77호로 지정된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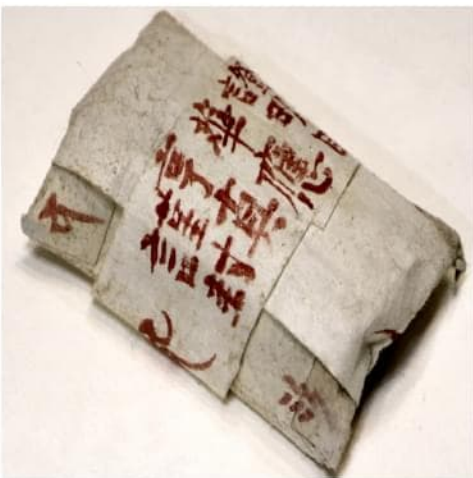
봉원사 석조여래좌상은 대방에 봉안되어 있다. 대방은 보통 사찰에 머물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 곳인데, 봉원사의 대방은 1967년에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아소정(我笑亭)’을 옮겨 세운 것이다. 석조여래좌상의 크기는 37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불좌상의 바닥에는 복장공이 뚫려 있고 안에는 각종 복장물이 들어 있다. 불상 조성 당시의 복장발원문은 없고 「금강반야바라밀경」, 〈팔엽대홍련지도〉, 〈준제구자천원지도〉, 〈열금강지방지도〉 등 각종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불상은 경주의 불석(佛石 혹은 沸石, Zeolite)으로 만들어졌다. 경주 불석으로 제작된 19세기의 불상들의 특징은 동안의 얼굴, 짧은 목, 단순하고 간결한 옷주름, 양손을 최대한 신체에 밀착시키고 있다. 불상 제작을 화강암이 아닌 경도가 낮은 부드러운 재질의 불석을 재료로 하는 경우 파손 방지를 위해 돌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신체를 두툼하게 표현하며, 양손을 무릎 위에 붙여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강원도 양구 심곡사 석조여래좌상(1887) 등과 같이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 경상도 지역 등에서 유사한 불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봉원사 대방의 석조여래좌상은 정확한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주 불석으로 제작된 다른 불좌상들과 동일한 형식과 양식을 지니고 있어 제작 시기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봉원사 대방의 석조여래좌상은 육계 없이 정상에 정상계주(頂上髻珠)와 그 아래로 반달 모양의 중심계주(中心髻珠)를 두었으며, 둥글넓적한 얼굴에는 이목구비를 조그맣게 그려 넣었다. 특히 코가 짧고 뭉툭하며, 인중이 짧고 턱에 살이 많아 아기와 같은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 ‘아기부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마에 백호는 별도로 그려 넣지 않았다. 나발(螺髮)도 한 돌로 같이 조각했는데, 앞면과 옆면만 나발을 새기고 뒷면은 새기지 않았다. 목은 짧고, 목에는 삼도가 없다. 어깨는 좁고 상체가 짧으며 무릎이 높는데, 두 손 모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가지런히 무릎 위에 두었다. 두 장의 가사를 어깨에 돌렸는데, 가장 바깥의 대의(大衣)는 변형 편단우견 형식으로 걸쳤다. 전체적으로 호분이 두텁게 발라져 있어 조각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봉원사 대방의 석조여래좌상은 아쉽게도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경주의 불석으로 제작한 여러 불좌상들과 동일한 형식 및 양식을 지니고 있어, 제작 시기를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다.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복장물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뒷면

한 해의 묶은 때를 씻어내고 지난해를 참회하며

- '작은 설' 동지불공(冬至佛供) 봉행 -



지난 12월 21일 동지를 맞이하여 봉원사 설법전에서 동지불공이 봉행되었다. 연일 1,000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로 인해 방역이 2.5단계로 격상되어 신도분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사부대중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불공이 거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조심스럽게 봉원사를 찾아주신

몇몇 신도분들께는 동지팔죽과 신축년 새해 달력을 배부함으로써 동지불공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위로하였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또한 동지는 이름처럼 겨울(冬)이 극에 달한(至) 시기로, 이날을 기점을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옛 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경사스럽게 여겨 명절로 삼았다. 이것은 동지를 신년으로 생각하는 고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통사회에서는 흔히 동지를 '작은 설'이라 하여 설 다음 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여기었다. 그래서 옛말에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팔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 전하기도 한다. 팔은 색이 붉어 양색(陽色)이므로 음귀(陰鬼)를 쫓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며 민속적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물에 팔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사람이 죽으면 팔죽을 쑤어 상가에 보내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는 상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다. 동짓날에 팔죽을 쑤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 뿌리는 것 역시 악귀를 쫓는 축귀(逐鬼) 주술행위의 일종이다.

원래 동지는 민간의 전통적인 명절이지 불가의 불교적인 명절은 아니다. 후세 사람들이 만들었기에 불교적이거나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민속이나 전통을 잘 수용한다는 불교의 장점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세상에는 불변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도 없거니와 또한 무의미한 일도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신도와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면 될 일이다.

일년 내내 불공을 드리는 사찰 입장에서의 동지불공은 특별한 불공은 아니다. 하지만 신도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발원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을 뜨게 하려는, 스님들의 작지만 큰 배려에서 행해지는 의미가 큰 불공이다.

기도를 마친 후 봉원사 주지 운봉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신도님들을 되돌려 보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라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대중 스님들과 관음회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맺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날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백일기도 회향 -



지난 12월 3일 봉원사 대웅전에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에 맞춰 백일 동안 정성을 기울여 왔던 회향 기도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이날은 부모가 산고를 겪으며 아이를 낳은 후, 노심초사하며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의 20년이 고스란히 집약되는 날이다. 공식적인 12년간의 교육을 한자리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부모와 수험생들의 간절한 바람이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기도 한다. 특히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학부모 및 수험생 가족들에게 이날 하루는 더 없이 중요한 날이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인한 수험생들은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에 매진해야 했을 만큼 이날의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치렀을 것이다. 또한 매년 그렇듯이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마음 못지않게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주체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일 것이다.

오전 8시부터 거행된 백일기도 회향법회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최대 참석인원을 대웅전 35명, 설법전 5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비대면 법회를 위한 인터넷 방송이

진행되었다. 또한 설법전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 신도들은 실시간으로 대웅전의 법회에 직접 참석한 것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험생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회향법회는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 아침 8시부터 각 시간별 법회가 마련되었다. 학생들이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진 회향법회는 이날 오후 수능 마감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끝을 마쳤다.

지난 백일 간 하루도 빠짐 없이 새벽 5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씩 봉행된 수능 백일기도는 정명 스님이 기도 법사로 수고해 주셨다.

이날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봉원사 법사 만춘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만춘 스님은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안정을 찾는 날"이라고 말하며 '무심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학부모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야말로 지상에 가장 숭고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모의 정성만큼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도 나올 것입니다. 학생이 평소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면 되는 것이니 고사장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시험을 마치고 나오길 기대하며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면 될 것입니다."라며, 오늘로 시험이 다 끝난 것이 아니므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더해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신심을 유지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기원하셨다.

성도재일 철야정진 기도법회 및 삼동산림 회향 안내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불생불멸 생사해탈의 무여열반'의 깨달음을 증득하신 날입니다.

깨달음의 의미를 돌이키고 의지를 다짐하고자 하는 신도들을 위하여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동참하셔서 이타적 삶과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소중한 자리기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삼동산림 회향 의식도 봉행 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부처님과 선근인연을 맺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성도재일 : 철야정진
1월 19일(음력 12월 7일) 화요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 삼동산림 : 화엄법회 회향
1월 20일(음력 12월 8일) 수요일 새벽 6시, 오전 10시
- 장 소 : 설법전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 정기 법회 안내 -

☒ 봉원사 관음법회 ☒

- 법 회 일 : 매월 음력 24일
- 장 소 : 봉원사 동절기-설법전
하절기-삼천불전
- 시 간 : 오전 10시



☒ 봉원사 화엄법회 ☒

- 법 회 일 : 매월 음력 1일
- 장 소 : 동절기-설법전
하절기-삼천불전
- 시 간 : 오전 10시
- 문 의 : 392-3007~8



☒ 보현 법회 ☒

- 상임법사 : 조환우 스님
- 지도법사 : 조효광 스님
- 법 회 일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
- 문 의 : 392-3013, 2636



☒ 삼 보 회 ☒

- 상임법사 : 박수암 스님
- 지도법사 : 박경재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4109



☒ 지 장 회 ☒

- 상임법사 : 석선암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9228



☒ 원 각 회 ☒

- 상임법사 : 마일운 스님
- 지도법사 : 마정교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3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5808



☒ 동 진 회 ☒

- 상임법사 : 장운호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초하루 후
첫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8379



☒ 보 현 회 ☒

- 상임법사 : 조현성 스님
- 지도법사 : 조벽담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3일
오전 11시
- 문 의 : 363-0059



☒ 정 각 회 ☒

- 상임법사 : 김태호 스님
- 지도법사 : 김법길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5787



☒ 법화정토회 ☒

- 상임법사 : 박처명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 문 의 : 393-8027



☒ 칠 선 법 회 ☒

- 상임법사 : 전지암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7일
오전 10시
- 문 의 : 010-4211-5268



☒ 칠 성 법 회 ☒

- 상임법사 : 이석천 스님
- 법 회 일 : 음력 5일 오전 11시
- 문 의 : 393-3126



☒ 청 심 회 ☒

- 상임법사 : 김향천 스님
- 법 회 일 : 음력 16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7770, 0266



☒ 묘 법 회 ☒

- 상임법사 : 엄혜담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2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8101



● 사보 후원금 ●

- 이 승 환 1만 원(인공 스님)
- 조 규 득 5만 원(환우 스님)
-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 정자(亭子) 기행 69



해암정(海巖亭)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3호 / 강원도 동해시

해암정(海巖亭)

경치가 빼어난 바닷가에 자리 잡은 작은 정자



해암정은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삼척 심씨(三陟 沈氏)의 시조인 심동로(沈東老)가 벼슬을 버리고 이 지역에 내려와 제자를 가르치며 생활할 때 지은 정자이다. 심동로는 고려말의 혼란한 시기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다가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왕이 이를 말렸으나 결국 노인이 동쪽으로 간다는 뜻의 '동로(東老)'라는 이름을 내려 결국 낙향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화재로 소실된 것을 1530년(중종 25)에 심언광이 다시 짓고, 1794년(정조 18)에 크게

수리하였으며 20세기 들어서 새로이 보수하였다. 동해 일출의 조망명소로 유명한 주암 촛대바위 부근에 위치한 해암정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정자건물이다. 돌로 기단을 낮게 쌓았으며 건물을 받치는 기둥은 모두 둥근 형태이다. 정면을 제외한 3면을 모두 4척 정도의 높이까지 벽을 세우고 상부는 개방한 형태이다. 또한 정면을 제외한 3면은 판문을 설치하였고 전면부는 '들어열개문'을 달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마는 초익공 양식의 흘처마에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들어열개문의 상부에는 현판이 세 개 걸려 있다. 왼쪽의 전서체 '해암정'은 계남 심지항(桂南 沈之漢)이 썼다고 한다. 각 글자마다 하늘거리는 바다풀, 우뚝 솟은 바위, 물고기의 형상을 띠고 있다. 가운데 '해암정'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이 해서체로, 오른쪽의 '석종함(石鐘檻)'은 송강 정철(松江 鄭澈)이 초서체로 썼다고 전해온다. 정자의 뒤편은 수많은 기암괴석들로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석종함은 해암정 뒤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위들에 파도가 부딪혀 나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종 때 송시열(宋時烈)이 덕원(德原)으로 귀양 가는 도중에 이곳을 둘러갈 때 아름다운 풍경을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워 초합운심경전사(草合雲深逕轉斜 : 풀은 구름과 어우르고 좁은 길은 비스듬히 돌아든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정자의 뒤편으로 해암정의 지붕보다 조금 높은 바위산이 정자를 둘러싸고 있어 매우 안정감이 있어 보이며, 이 바위산에서 맞는 동해의 일출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부재명	모연금	부재명	모연금
추녀	500	서까래	20
사래	200	개판	20
도리	100	부연	10
장여	50	기와(대와)	2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불사 시주자 명단(무순)

조정환 박금주 박금순
무기명 (고)정원식

시주해 주신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